

망년의 자격

정운영

경기대 교수·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어제를 불러라, 시간을 되돌려라.” 셰익스피어의 대사이나 등장하는 이런 호기가 어찌 우리에게 가능하랴. 올해의 안녕을 소망하던 일이 정말 어제같은데, 벌써 새해의 축복을 기원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은 올해의 시련과 성취에 따라 각자 다를 터이다. “벌써 새해가?” 라면서 보내는 해의 회한을 되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서 새해를!” 이라면서 지난해의 소득을 가슴 뿌듯이 간직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련과 성취의 갈림은 개인의 능력 못지 않게 ‘사회의 능력’에도 책임이 있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직장 일에 매달리고, 푼돈을 쪼개며 힘들게 가게를 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숙제’를 끝냈지만 그 ‘보답’은 당초 기대와 거리가 멀기 예사다. 감원 선포에 가슴 졸이는 가정의 처지가 그렇고, 적자 가게부로 얼굴에 주름이 늘어난 주부가 그렇고, 입학시험에 실패한 수험생이 그렇다. 복권 당첨되듯이 그야말로 행운을 거머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적잖은 회한과 실의의 울적한 기분으로 또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인생이란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점점 피곤해지는 긴 여행일지 모른다. 그래서 소주라도 한잔 걸치면 “인생이 별거야? 그리저럭 사는 거지” 라면서 짐짓 자신을 위로하곤 한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길목에 굳이 망년(望年) 아닌 망년(忘年)의 절차를 마련한 선인의 지혜를 새삼 깨닫게 된다.

이 겨울을 더욱 적막하게 만드는 사회의 책임 가운데는 실업이 단연 윗자리를 차지한다. 주위의 명예퇴직 소동은 가뜩이나 착잡한 연말의 심사를 이리 꼬고 저리 비튼다. 퇴직은 단순히 직장과 수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잃는 듯한 비감에 젖게 하기 때문이다. 당자에게 그 시련은 물가나 국제수지 고통 따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선거를 치를 내년 역시 전망이 밝지 않다. 상식으로 따지면 선거가 경제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데, 우리 경우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재계의 내년도 투자 목표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소식인데, 한마디로 그것은 일자리가 늘지 않으리라는 통고이다. 일이 없으면 밥이 없고, 밥이 없으면 책도 없다. 책이 밥보다 중하다는 가르침은 봉건 시대의 우직한 윤리이고, 약삭빠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배가 불러야 책을 읽는다. 아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불황이 걸히면 다시 호황이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그러나 불황에서 잃은 마음의 양식은 영영 되찾을 길이 없다.

“인생은 앞으로 살지만 오직 뒤로만 깨달을 뿐”이라는 말을 불안과 우수의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남겼던가? 옛세의 수고 뒤에 하루의 휴식을 허락한 ‘천지창조’ 설계처럼 우리는 하나의 기쁨을 얻으면 지난 여섯개의 고통을 모두 잊는다. 그래 그렇다. 인생은 양과 같아서 자꾸 껍질을 벗기면 남는 것이 없는데도, 기어이 껍질을 벗기려고 달려드는 것은 그 하나의 기쁨에 거는 우리 삶의 질기고 서러운 집착 때문이리라. 그렇다면 먼저 살고 나중에 알도록 선처한 조물주의 섭리에 감사해야 한다. 그 반대 경우라면 과연 누가 살려고(?) 하겠는가! 내년에 비록 여섯개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릴지라도 오늘은 하나의 기쁨을 자축하자. 망념(妄念)이 아니고 망령(妄靈)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월을 뜻뜻이 견디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망년회를 즐길 자격이 충분하다.

송년 특집 2 정보시대 문턱에서 서성거린 한 해
'96 출판계의 빛과 그늘

4 인문서 부흥하고 '성'은 넘쳤다
책의 흐름을 통해 본 올 한 해

6 "올해 우리 출판사를 움직인 책"
12개 출판사의 성공과 실패

10 96년에 화제를 몰고온 저자들
김정현 / 주강현 / 이주향 / 장승수 / 하광호

특별기획 앙케트 12 연말연시에 내가 선물하고 싶은 책
아이들에게 / 대입 앞둔 청소년에게 / 직장동료에게
결혼 앞둔 이들에게 / 퇴임한 어른들께

출판 시평 18 엔터리 번역에 뒷걸음치는 출판문화 - 이한우

출판 화제 19 올바른 번역 위한 지침서 활발

화제의 출간 20 《겨레말 용례사전》 출간·외

출판계 소식 21 국립중앙도서관 외국학술정보 확충·외

책 읽는 사람 22 잃어버린 사유의 공간을 찾아서 - 정진국
7 지하철에서의 책읽기

재미있는 기획산책 23 갈리마르 출판사의 《그림의 발명》 - 장익순

서평 24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사》 - 정용욱

학술단체협의회 《재벌과 언론》 - 강준만

25 피터 싱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 김형철

26 A. 바루치 《대안적 삶의 형식》 - 최종덕

프랜시스 후쿠야마 《트러스트》 - 송재운

27 트루질 《환경문제의 결과 속》 - 엄기철

새책 흐름 28 '지도'로 읽어보는 문화와 역사·외 / 인문·어린이

30 새책 속으로

38 새로 나온 책

47 정기간행물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 이중환

표지 사진 / 김지옥(관련기사 12면)

알림

본지 12월20일자 정기 휴간

《출판저널》은 연말연시의 정례휴가에 따라 예년과 같이 12월20일자를 휴간하고, 다음 호(205호)는 1997년 1월5일자 신년호로 발행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